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4.14(금) ~ 2023.04.20(목)

제공일시 2023 04 28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4.14(금) ~ 2023.04.20(목)

제공일시 2023 04 28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 1. "원자력·가스가 녹색 에너지?"...결국 '피고'로 국제법정 서게 된 EU

- 유럽연합(EU)이 친환경 투자 기준인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원자력과 가스를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결국 국제법정에 '피고'로 서게 됐음. [\(한국일보, 2023.04.18\) 전홍일 기자](#)  
[\(한겨레, 2023.04.18\) 신기섭 기자](#)
- 그린피스를 비롯한 국제 환경단체들이 원자력·가스에 '녹색' 딱지를 붙이는 것은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소송전에 나섰다기 때문임.
- 그린피스는 이날 유럽사법재판소(ECJ)에 EU 집행위원회를 제소했음 원자력과 가스를 녹색 에너지로 본 EU의 결정을 무효로 해 달라고 주장했으며, 가디언은 이번 제소 결과가 2025년에야 나올 전망이라고 전했다.
- 이와 별도로, 환경법 관련 단체 '클라이언트 어스'와 세계자연기금(WWF) 등 4개 단체도 가스만 문제 삼는 소송을 이날 제기했는데, 메탄을 배출하는 화석연료인 가스를 '지속가능한 연료'로 보는 건, 탄소 배출량 감소를 목표로 하는 EU 기후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주장임.

### 2. 캐나다, 플라스틱 제품에 재생성분, 라벨 부착 의무화 규칙 제안

- 캐나다 정부는 플라스틱 제조, 사용, 관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조치를 발표했다. [\(ESGToday, 2023.04.19\) Mark Segal 기자](#)
-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새로운 라벨 규칙 제안, 플라스틱 포장 및 플라스틱 레지스트리에 대한 보고를 위해 재활용 물질에 대한 의무요구사항 등을 담을 예정임.
- 플라스틱 포장 및 일회용 플라스틱 품목의 라벨에서 '분해 가능' 혹은 '생분해 가능' 용어 사용을 금지하고, 퇴비 가능한 라벨 표시에 대한 최소 기준을 정함.
- 또 플라스틱 포장에 최소한의 재활용 물질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플라스틱 레지스트리(등록부)를 만들어, 캐나다 시장에 출시되는 플라스틱에 대한 연간 보고요건, 수명이 다한 플라스틱 관리방법 등 데이터 공개를 통해 플라스틱을 추적함.

### 3. 성장하는 中 환경보호 산업...탄소중립 시대 블루오션 부상

- 중국 환경보호 산업이 탄소중립 기조와 맞물려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어, 당국 정책 변화에 힘입어 우리 기업들도 신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지 주목됨. [\(더구루, 2023.04.15\) 정예린 기자](#)
- 15일 중국 천진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에 따르면, 환경보호 산업 시장 규모는 지난해 2조2200억 위안(약 427조4000억원)에서 오는 2027년 4조4000억 위안(약 847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영업이익의 연간 복합 성장률은 12%에 이를 전망이다.
- 중국에서는 △광다환경 △베이콩수처리 △베이징소우창환보생태 △텐잉 △거린메이 등이 5대 환경보호기업으로 꼽히는데, 이중 상위 3개 업체는 국유기업, 텐잉과 거린메이만 민영기업이라 높은 국유사 비중으로 인해 해외 기업들은 현지 시장을 공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전문가들은 쌍탄 목표(중국이 2030년 전까지 탄소배출 피크에 도달하고 2060년 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내용) 등 최근 중국 정책 변화를 면밀하게 살펴 사업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함.

## 1. 내연기관용 e-퓨얼, 한국서 대체연료 인정 추진

- 2050 탄소 중립을 위해 내연기관을 없애는 게 아니라, 내연기관의 연료 전환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미래 에너지로 각광받는 탄소중립연료(이퓨얼)가 국내에서도 허용될 전망이다. [\(오토타임즈, 2023.04.15\) 김성환 기자](#)
- 지난 14일 부산 백스코에선 정부, 기업, 학계 등이 모여 최근 떠오르는 e퓨얼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으며, 토론에는 카이스트를 비롯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HD현대인프라코어, HD현대중공업, 현대차 등이 참여했음.
- 각 기업들은 배터리와 e퓨얼 발전기의 혼합 사용이 탄소 중립에 도달 가능한 현실적 대안임을 확인했으며, 현재 승용 및 상용 연료전지에 지급 중인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보조금 지원을 비롯해 규제 완화, 제도화 되는 과정에서 e퓨얼의 성격을 석유 대체사업으로 갈 지, 아니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명확한 방향을 잡는 게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 2. 불붙은 탄소 포집기술 경쟁...“정부가 발벗고 나서야”

- 대한상공회의소가 17일 ‘국내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해외 탄소 저장소 확보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 2023.04.17\) 서진우 기자](#)  
[\(국제신문, 2023.04.17\) 정옥재 기자](#)
- 한국은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CCUS의 2030년 감축목표를 기존 1040만t에서 1120만t으로 80만t 확대했지만, 2030년까지 누적으로는 1680만t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CCUS 기술 개발과 사업 추진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 문제는 한국처럼 탄소 저장소가 부족한 국가는 런던협약(폐기물과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에 따라, 포집된 탄소를 이동시키기 위한 국가간 협약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임.
- 국내의 높은 CCUS 비용도 문제인데, 국내 저장소가 부족한 만큼 탄소를 수출하기 위한 수송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임.

## 3. 산업용보다 비싼 ‘재생에너지용 전기 요금’... PPA 요금제 유예

- PPA 요금제가 산업용 전력 요금제에 비해 비싸 기업들이 반발하면서, ‘직접 전력거래계약(PPA)’ 요금제 도입을 두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음. [\(경향신문, 2023.04.17\) 박상영 기자](#)
- 한전은 PPA 요금제 도입이 담긴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 시행을 6월 30일까지 유예했음
- PPA요금제는 기본요금이 kWh당 9980원으로 산업용(6630원)보다 50.5%나 높고, 재생에너지를 1%만 쓰는 사업자이더라도 PPA 요금제가 적용된다는 내용 때문임.
- 그동안 도입 실적이 저조했던 PPA 제도가 이번 요금제 도입으로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환경단체는 PPA 요금제가 자칫 재생에너지 확대를 막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1. 애플, 2025년까지 배터리에 100% 재활용 ‘코발트’ 사용

- 애플이 오는 2025년까지 자신들이 설계하는 모든 배터리에 100% 재활용 코발트를 사용하겠다는 목표를 14일 밝혔음.
- 또, 애플은 애플 기기의 자석에 100% 재활용 희토류를 사용하고, 설계하는 모든 인쇄 회로 기판의 솔더와 도금에 각각 100% 재활용 주석과 100% 재활용 금을 사용할 예정임.
- 향후 모든 제품을 재활용 및 재생 가능한 소재로만 만드는 것이 애플의 방침임 애플은 2030년 모든 제품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음.
-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우리 제품에 사용되는 재활용 소재부터,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재생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우리가 만드는 모든 제품은 물론 우리의 정체성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음.

(조선비즈, 2023.04.14) 이경탁 기자  
(인더스트리뉴스, 2023.04.16) 이권오 기자

## 2. 바스프, 지속가능 플라스틱 솔루션 소개

- 글로벌 화학기업 바스프가 오는 4월 17~20일 중국 선전에서 개최되는 국제 플라스틱 및 고무 무역 박람회 차이나플라스(CHINAPLAS) 2023에 참가한다고 밝혔음.
- 바스프는 이번 박람회에서 플라스틱의 수명주기를 이루는 3단계인 MAKE(생산), USE(사용), RECYCLE(재활용)의 각 단계에서 시장을 선도하며 탄소 감축에 기여하는 제품과 솔루션을 소개했음.
- MAKE(생산) 단계에서는 재생 가능하거나 재활용된 공급 원료를 사용해 플라스틱의 - 제조 방식을 개선하며, USE(사용) 단계에서는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제품 수명 주기 연장 등을 통해 플라스틱의 성능을 향상시킴
- 또 RECYCLE(재활용) 단계에서는 화학적 재활용 프로젝트인 ChemCyclingTM(켄사이클링) 및 물리적 재활용 등을 활용해 플라스틱의 재활용 방법을 개선하고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고 밝혔음

(신소재경제, 2023.04.14) 유은주 기자

## 3. CATL, “2035년까지 배터리 밸류체인 부문 ‘탄소중립’ 달성하겠다”

- 글로벌 배터리 전문기업 CATL이 지난 18일, 제20회 상하이 국제 모터쇼(Auto Shanghai 2023)에서 2025년까지 핵심사업 부문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 선언했음.
- 이에 더해 2035년까지 배터리 밸류체인 부문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 CATL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광산, 대량 원료, 배터리 소재, 셀 제조 및 배터리 시스템 등 5개의 핵심 연결고리 부문에서 회사의 4가지 혁신 시스템의 지원을 받아 탄소 감축을 추진할 예정임.
- 또 CATL은 CREDIT 공급망 투명성 감사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관리 기제, 사업윤리 강령, 환경보호, 노동 관행 및 책임감 있는 조달 등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음.

(인더스트리 뉴스, 2023.04.20) 이권오 기자

## 1. 삼성물산, 그린수소 등 친환경 사업에 역량 올린

- 삼성물산이 올 한 해 태양광, 소형모듈원전(SMR), 그린수소 등 친환경 미래사업을 더욱 확장해나간다는 계획을 밝혔음.
- 특히 태양광과 관련해, 카타르에너지의 태양광 프로젝트 공사금액은 약 8,000억원 규모이며, 사업부지에 설치되는 태양광 패널은 총 160만여개에 달함.
- 또, 삼성물산은 올해 SMR 사업도 본격화하여 SMR 시장 진출을 위해 세계 1위 SMR 기업인 미국 뉴스케일파워(NuScale Power)에 2021년 2,000만달러, 2022년 5,000만달러 규모의 지분투자를 했음.
- 이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그린수소를 핵심 에너지 수출 자원으로 육성하려는 국가와 긴밀한 협력에 나설 방침임.

(시사위크, 2023.04.17) 김필주 기자

## 2. HMM, 삼성중공업과 '탄소 포집 시스템' 실증

- HMM이 삼성중공업 및 국내 친환경 설비 전문기업 파나시아와 컨테이너 선박용 탄소 포집 시스템 실증 연구를 진행했음.
- 선박용 탄소 포집 시스템(OCCS)은 선박 운항 시 발생하는 배기가스 내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배출을 방지하는 온실가스 대응기술로,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로부터 탄소 감축량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 주목받고 있음.
- 연구에 기반해 HMM과 삼성중공업 및 파나시아는 하반기에 컨테이너선에서 실증 연구를 추가 진행할 예정임.
- 이외에도 HMM은 프로펠러 규제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약 9% 높여나가면서, 국제해사기구가 시행하는 탄소집약도 등급제(CII 등급제)에 대응할 계획임.

(머니투데이, 2023.04.19) 이강준 기자

## 3. SK에코플랜트·현대엔지니어링, 美 USNC와 탄소중립 수소 생산

- 현대엔지니어링과 SK에코플랜트가 초소형모듈원전(MMR) 전문 기업 美 USNC와 협력하여 탄소배출 없는 수소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에 나섰다.
- 협약에 따라 3사는 향후 5년 간 공동으로 MMR-SOEC 연계 통합 플랜트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함
- 이를 통해 가격 경쟁력 있는 수소 생산 체계 구축을 검토하고, 향후 수소 생산 및 공급 사업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는 방침임.
- 이번 프로젝트는 현재 상용화 돼 있는 경수로 기반 원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고온의 증기를 발생시킬 수 있어 고온에서 작동하는 SOEC를 활용하면 적은 에너지로도 수소 생산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어 기대를 받고 있음.

(현대경제신문, 2023.04.20) 정유라 기자

(문화일보, 2023.04.20) 김성훈 기자

#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3.04.14(금) ~ 2023.04.20(목)

제공일시 2023 04 28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불꽃튀는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충전 사업 전쟁

-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미국 정부는 전기차 충전소를 2030년 50만개까지 늘리기 위해 75억 달러(약 9조8948억원)를 지출할 계획을 밝혔음. 또 현재 유럽에는 매달 약 2만5000개의 충전소가 설치되고 있음.
- 특히 미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의 정책으로 전기차 판매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자국 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내 전기차 충전사업에 뛰어들고 있음.
- 미국의 전기차 충전 사업에 가장 베풀린 업체는 이탈리아 최대 전력회사인 에넬(Enel)그룹임. 에넬그룹의 자회사인 에넬X웨이는 주스박스(Juicebox) 브랜드로 가정용 및 상업용 전기차 충전기 시장의 주요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에넬X웨이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이미 17만 대 이상의 충전기를 설치했고, 2030년까지 미국에 200만 대 이상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앞으로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 연방 정부의 NEVI(National Electric Vehicle Infrastructure)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만 대 이상의 직류 공공 충전소를 추가할 예정임.
- 한편 SK그룹은 3,381억원을 들여서 지난해 미국의 충전사업체 에버차지(Evercharge)의 지분 91%를 인수하여 미국 내 전기차 충전사업에 뛰어들었음. 에버차지는 201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창업한 전기차 충전업체로, 충전기 생산부터 충전소 설치, 운영까지 포괄적인 사업을 북미에서 벌이고 있음.
- SK그룹은 이외에도 전기 생산업체 SK시그넷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 시장을 공략할 전망이다 .SK그룹은 2021년 초고속 충전기 전문기업 시그넷이브이를 인수하고 지난해 SK시그넷으로 사명을 변경했음. SK시그넷은 350킬로와트(kW)급 초고속 충전기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 텍사스주에 연 1만기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춘 공장을 짓고 있음.
- 이외에도 GM, 메르세데스 벤츠 등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와 대형 렌터카 업체들은 전문 업체와 손잡고 미국 전역에 충전소를 잇달아 세우고 있음. 미국의 GM은 2025년까지 전기차 충전소에 7억5000만 달러(약 9894억원)를 들여 북미 전역에 충전 네트워크를 확장한다는 계획을 세웠음. 또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는 연내 미국에 고출력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2030년까지 북미에 10억 유로(약 1조 4415억원)를 투자했음.
- 전기차와 관련 없어 보이는 아마존, 스타벅스, 월마트도 올해 안에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전기차 제조사와 충전 인프라 업체, 플랫폼 기업 간 합종연횡이 활발함. 아마존은 EV고(GO)와 자사 인공지능 알렉사를 기반으로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올 하반기 시작하고, 우리에게도 친숙한 스타벅스는 테슬라, 볼보와 협업해서 미국내 매장에 충전소 네트워크를 구축함
- 전기차의 리더격인 테슬라 역시 지난해 말부터 전용 전기차 충전소 중 일부를 경쟁사 차량에도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충전 표준을 선점하려고 자사 충전소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중임

[\(임팩트윤, 2023.04.19\) 홍명표 기자](#)

[\(임팩트윤, 2023.04.20\) 홍명표 기자](#)

- 한편, 유럽에서는 폭스바겐 산하의 유럽 내 충전 네트워크 1위 업체인 엘리가 50만 기의 충전기를 보유하여 시장의 선두주자가 되고 있음. 엘리는 지난 2019년 폭스바겐 그룹이 전기차에 전력을 공급하고 충전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회사로, 가정용 충전솔루션, 사무실, 일반 도로변 등 다양한 방식을 충전시스템을 제공함
- 엘리 충전기는 유럽 28개국 950개 이상의 공급업체를 두고 있으며, 폭스바겐 그룹의 전기차 운전자에게 충전 서비스를 제공함 폭스바겐 그룹의 자체 충전 네트워크 역시 불과 4개월 동안 10만개로 확장하는 등 빠른 보급에 나서고 있음.
- 엘리 충전 네트워크에는 현재 주로 도시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전통적인 교류 충전소 외에도 유럽 전역에 3만3000개의 고출력 충전소가 있음. 새로운 플러그 앤 차지(Plug & Charge) 기술을 사용하면 플러그를 꽂고 차량 요금을 청구하는 과정이 매우 간단히 해결되며, 엘리 네트워크 내 약 5000개의 충전소에서 이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 이동성 서비스 제공업체(MSP)인 엘리는 고속도로의 급속 충전기와 야간 충전을 위한 직류 충전소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충전소에 대한 간단한 가격 책정을 제공함. 엘리는 폭스바겐 뿐만 아니라 모든 전기차 제조업체의 운전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함
- 충전 비용은 운전자 개인의 운전 습관과 충전 습관을 고려하여 온라인에서 미리 계산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음. 엘리 또는 제조업체인 SEAT & CUPRA의 이지차징(Easy Charging), KODA AUTO의 파워패스(Powerpass), 폭스바겐의 위차지(We Charge)의 고객이라면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음.